

中國 中東部 農村住宅의 고령자의 거주에 관한 調查研究 - 安徽省 滁州市를 中心으로 -

A Study For Farmhouse feature in Middle Eastern China -Focused on the Chuzhou city Anhui province-

유 이 연* 이 동 숙** 윤 충 열***
Liu, Yi-ran Lee, Dong-Suk 1)Youn, Chung-Yeul

Abstract

Cities of China have been expanding rapidly during the last 10 years and the living environment of urban population developed highly making little difference with the developed nations. However, in the case of rural area, situation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urban area. There are some cases where the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s is retreating compared to the past. Agrarian cultures of the past are remained in the rural area with only older generations and no younger generations. The difference between the rural and the urban and the movement to the cities are increasing in a rapid speed. This led to the recognition of potential danger that lies on the agricultural societies which can demolish the economic development's sustainability.

Therefore, in this study, basic information about the current Chinese elderly's house circumstances and to build new houses suited for the older generations will be provided. This can not only enhance the quality of the elder citizen's life, but also can be a meaningful research for the ideal construction of future Chinese agriculture.

키 워 드 : 농촌주거, 중국, 고령자
Keywords : Rural residential, China, Elderly

1. 서론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농촌에서도 청·장년의 이탈과 더불어 고령화가 커다란 사회문제이자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¹⁾. 현재 중국의 인구는 13억을 넘어섰고, 중국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은 13억 중국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으로의 수출로 이어지며 세계 농산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세계의 경제적인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²⁾. 이러한 고령화와 도시로의 이주 증가 등으로 인해 중국의 농촌의 위축이라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³⁾.

중국의 도시는 최근 10여년 동안 급속하게 팽창하였고 더불어 도시민의 생활환경은 선진국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는 도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반적인 여건이 과거보다 오히려 후퇴하는 농촌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⁴⁾. 결국 과거의 단순한 농경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노동력의 중심인 청·장년층이 사라진 농촌은 쇠락해진 노인들만이 남겨진 상태이다.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도시로의 이주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지금, 농촌의 낙후성이 결국엔 경제발전의 지속성을 붕괴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인식되고 있다⁵⁾.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중국의 농촌지역의 주요 거주자인 고령자의 주택현황과 주요 실에 대한 의식을 조사·분석하여 중국의 농촌지역 고령자의 생활상에 적합한 새로운 농촌의 고령자 주택을 계획하는데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것은 농촌지역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 농촌의 이상적인 건설에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정회원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
** 정회원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정회원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교신저자, cyyoun@wonkang.ac.kr)
이 논문은 2013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1) 2010년 현재 65세 이상인구는 8.2%로 2026년에는 고령사회로, 2036년에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김정근, *늘어가는 중국: 중국의 고령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SERI 경제포커스, 2011.3. p. 2~3
2) 중국 소비자물가가 1% 상승하면 한국 소비자물가는 약 0.5% 내외의 상승이 예측됨. 엄정명 외, *중국 리스크 평가와 한국 경제*, CEO 인포메이션(790), 2011. p. 1~20
3) 2030년 노인인구 비율이 농촌은 20.2%, 도시는 13.0%로 전망

됨. OECD(2010), *OECD Economic Surveys: China*
4) 유이연 외, *중국 중동부 농촌주택의 특징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2013.2. p.57-64
5) 류닝왕, *농지아리 관광을 통해 본 중국의 농촌사회*, 전북대학교 석논, 2012. p.57-64

본 연구를 위해 2010년 12월 ~ 2011년 1월까지 10개의 농촌마을 중 선정된 가구의 가구원 중 조사가 가능한 65세 이상의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등 주요실과 옥외공간의 보유 및 이용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 조사대상의 개요

2.1 조사대상 지역의 특성

조사대상지역인 중국 안휘성은 중국의 동부지역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지는 지역 중 하나이다. 최근 10년 동안 호적인구는 9.9% 정도의 증가를 보였으나 실제 상주인구는 0.6% 정도가 증가하여 실질적으로는 인구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⁶⁾. 또한 1960년대까지는 경제총량의 70%가 농업으로 낙후된 전통적인 농업성이었으나 개혁개방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차 산업의 비중은 급감하고⁷⁾, 공업과 건축 등 2차 산업이 증가하는 변화⁸⁾가 발생하였다.



Fig. 1 Location of the survey area

추주시는 안휘성의 중동부에 위치하며, 2010년 현재 약 450만명에 이르고 있다. 중국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차 산업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는 반면 이외의 산업전반의 생산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⁹⁾. 전형적인 중국의 도농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시 중심부는 주변 농촌으로부터의 이주가 빈번하여 건물의 밀집도가 높은 반면에, 농촌지역은 마을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주거환경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시를 중심으로 재래주택의 개량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농촌지역의 개량화는 아직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도시와 인접한 농촌과의 주택 및 주거환경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여 두 지역간의 차이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6) 재인용. 2010년 안휘성 통계연감.
 7) 2000년에는 25.6%였으나 2009년에는 14.9%로 감소
 8) 2000년에는 36.4%였으나 2009년에는 48.8%로 증가
 9) www.chuzhou.gov.cn
 10) 유이연 외, 중국 동북부 농촌주택의 특징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013.2. pp. 55-62.

2.2 조사대상 거주민의 특성

2010년에 실시한 제6차 중국인구 조사통계에 의하면, 추주시의 인구는 3,937천명이고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은 10.7%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0년 제5차 조사에 비해 약 2.89% 증가하였고, 반면에 14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9.0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65세 이상의 노인 100명 중 65 ~ 74세가 75.0%이며, 이들 중 여성의 비율이 58.0%로 한국의 58.6%¹¹⁾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고연령자 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노인의 건강상태는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동작)을 걷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의 5가지에 대한 응답을 평균하였다. 설문 결과, 전부 혼자서 할 수 있는 경우(자립가능)가 78.0%, 전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5.0%로 비교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노인의 원활한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원의 설문조사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다.

Table. 2 Age population(2010)

구 분	~14세	15~64세	65세~	계
중 국	222,460(16.6)	998,433(74.5)	118,832(8.9)	1,339,725(100)
안휘성	10,699(18.0)	42,745(71.4)	6,057(10.6)	59,501(100)
추주시	677(17.2)	2,837(72.1)	423(10.7)	3,937(100)

-단위:명(%)-

Table. 3 Age distribution of Gender(2010)

구 분	65세 미만	65세 - 74세	75세 이상	계
남 자	4(9.5)	31(73.8)	7(16.7)	42(100)
여 자	4(6.9)	44(75.9)	10(17.2)	58(100)
계	8(8.0)	75(75.0)	17(17.0)	100(100)

-단위:명(%)-

조사대상 노인의 가족유형은 세대별 구성형태를 기준으로 독거노인과 노인부부의 단순가구와 2대 이상이 동거하는 복합가구으로 구분하였는데, 단순가구가 56.0%, 복합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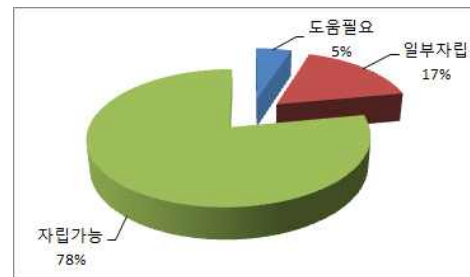


Fig. 2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11) 65세 이상 고령자의 성비는 70.1명임. 2013 고령자 통계, 통계청. 2013

구는 44.0%이며 노인부부형이 44.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3대 동거형과 2대 동거형¹²⁾이 각 18%로 다른 세대와의 동거형보다는 노인만의 세대 구성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독거노인 가구가 12%로 한국의 6.9%¹³⁾보다 높아 고령가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Fig. 3 Types of elderly family members

3. 고령자 주택의 주거공간의 이용현황

3.1 침실의 이용현황

생활수준에 따라 노후도의 차이는 있으나 노인들의 침실에는 텔레비전, 선풍기, 침대, 옷장, 껌, 테이블, 의자 등의 가구와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재래주택의 바닥은 시멘트 몰탈, 개량주택은 마루마감으로 되어 있다.

가구당 침실 현황을 보면 평균 보유 침실수는 3.12개, 실사용 침실수는 2.07개로 나타났다. 3개를 보유하고 있는

Table. 4 Bedrooms interior

구분	침실
재래주택	
개량주택	

경우가 60.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4개인 경우가 20.0%로 3~4개의 침실을 보유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침실수가 2개인 경우가 40.0%, 1개인 경우는 31.0%로 약 70%는 1~2개의 침실로 생활하고 있으며, 보유한 침실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28.8%로 침실의 실제 이용율은 낮음을 알 수 있다¹⁴⁾.

12) 2대동거형은 65세 이상의 노인세대 + 중년의 자녀세대, 3대 동거형은 65세 이상의 노인세대 + 중년의 자녀세대 + 청년의 손자녀세대의 경우임

13) 2013 고령자 통계, 통계청, 2013

Table. 5 Number & Ratio of Bedrooms

사용실수	보유실수	1실	2실	3실	4실	5실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1실 사용	호 수	3	6	11	11	-
	사용율(%)	100.0	50.0	18.3	55.0	-
2실 사용	호 수	-	6	31	1	2
	사용율(%)	-	50.0	51.7	5.0	40.0
3실 사용	호 수	-	-	18	1	1
	사용율(%)	-	-	30.0	5.0	20.0
4실 사용	호 수	-	-	-	7	2
	사용율(%)	-	-	-	35.0	40.0
5실 사용	호 수	-	-	-	-	-
	사용율(%)	-	-	-	-	-
평균			1.50	2.48	3.85	3.00

조사대상 모두 침상의 입식 양식이며 냉난방설비는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이는 안휘성이 연평균 14~17°C의 온대와 아열대의 기후가 지나가는 지역으로 습기가 많고 사계절이 뚜렷하며, 서늘하고 건조한 동절기에는 예로부터 화로 등의 일시적인 난방기를 주로 거실에서 사용해 왔다는 응답이 대부분이다.



Fig. 7 Examples of heating

3.2 주방의 이용현황

주방에는 전통의 부뚜막(화덕), 큰 물독, 식기찬장, 식탁, 빨감용 나무 등이 있으며, 일부 개량주택에는 수도설비 등을 갖춘 근대적인 부뚜막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우선 주방이 설치된 위치를 살펴보면, 38.0%는 본체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개량주택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면, 62.0%는 침실, 거실 등과는 분리되어 별체에 설치되었으며 재래주택의 대부분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주방내 급탕설비가 설치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재래주택의 주방바닥은 아무런 마감을 하지 않은 흙바닥으로 별도의 배수설비는 없다, 또한 부뚜막 근처에 창문을 설치하여 자연통풍을 유도하여 연기를 배출하고 있으나 벽면의 노후정도를 보면 장기간의 이용으로 창문을 통한 배연의 효과는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주방에

Table. 6 Installation Location & E quipment of Kitchen

구분	주방 위치 및 설비		-명(%)
	본체내	부속채로 분리	
위치	38(38.0)	62(62.0)	100
	설치됨	설치되지 않음	계
급탕설비		100(100.0)	100

14) 1실 보유가구 제외

서 사용되는 연료 대부분이 다량의 연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침실 등과 근접하여 설치하기 곤란하여 독립된 별채에 주방공간은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개량 주택인 경우,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이며 개량된 부뚜막(화덕)과 상수도의 급수설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물을 사용하고 있다.

Table. 7 Kitchen interior

구분	주 방	
재래 주택		
개량 주택		

주방에서 사용하는 취사용 연료로서는 나무가 46.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석탄이나 가스화 나무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약 30%정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재래부엌에는 전통적인 부뚜막(화덕)과 뿔감을 위한 수납공간 있다. 그러나 일부 주방 면적이 협소한 경우에는 전통의 부뚜막(화덕)대신 석탄 스토브 혹은 작은 가스풍로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일부이기는 하나 작은 부뚜막(화덕)인 경우 스토브나 풍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Table. 8 Cooking fuel of Kitchen

구분	가스	석탄	나무	가스+석탄	나무+석탄	계
연료	16(16.0)	10(10.0)	46(46.0)	22(22.0)	6(6.0)	100

-단위:명(%)-

3.3 화장실의 이용현황

사진조사 결과, 중국의 경우에는 일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욕실의 설치율과 개량화가 미비하고, 화장실의 설치율은 높으나 개량화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직까지 중국의 농촌에서는 화장실과 욕실을 실내주거공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장실과 욕실의 실내 설치가 일반적이라는 설명을 선행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화장실의 경우, 실외에 위치하는 82.0%는 대부분 재래주택이며 이 중에서 창문, 조명 등의 설치율은 10% 내외이며, 출입문조차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80% 내외에 이르고 있다. 또한 실외라 응답한 경우에도 가까운 마을의 공공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경우도 10% 정도로 나타났다.

Table. 9 Toilets interior

구분	재래주택	개량주택
화장실		

개량주택 화장실은 도시주택의 화장실과 거의 유사하지만 정화조, 배수 등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실내 화장실을 보유한 18가구 중 7가구만이 수세식 변기가 설치되어 38.9%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11가구는 재래식 변기가 설치되어 있어 악취 등으로 거주자의 건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화장실에 난방설비가 갖추어진 경우는 없어, 동절기 이용에 불편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노인의 경우 신체의 일부가 갑자기 추위에 접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혈관계통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요소가 될 우려가 크다.

Table. 10 Installation Location & Equipment of Toilets

구분	화장실 위치 및 설비		-명(%)-
	실내	실외	
위치	18(18.0)	82(82.0)	계 100
	개량식	재래식	계
변기	7(7.0)	90(93.0)	100
	가능	불가능	계
난방설비	-	100(100)	100(100)

3.4 욕실의 이용현황

중국에서의 목욕문화는 크게 발달하지 않았고, 일부 상류층의 특권으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건조한 날씨 때문에 잦은 목욕이 피부질환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식수와 용수가 심각하게 부족했기 때문에 예로부터 일반 주민의 목욕은 일상적인 생활이라 할 수 없다.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 고령자의 83.0%는 주택 내에 욕실이 없으며, 필요시 주방에서 물을 끓여 간단하게 목욕을 하거나 마을의 공공욕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겨울철에는 매일 간단한 세면 등으로 만족하고 목욕은 1주일에 1회 정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욕실을 보유한 경우는 개량주택으로 모두 실내에 설치한 것



Fig. 15 Bathroom interior

으로 나타났다. 주로 욕조, 거울, 샤워기, 급탕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일부 태양열 온수기 혹은 전기 온수기 등을 설치하여 온수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적인 도시형 주택의 욕실형태와 유사하였다. 또한 샤워기의 설치율은 13.0%, 욕조의 설치율은 4.0%로 욕조보다는 샤워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욕조와 샤워기가 모두 설치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Installation Location & E quipment of Bathroom

구 분	욕실 위치 및 설비			계	
	실내	실외	없다		
위 치	17(17.0)	-	83(83.0)	100	
설 비	샤워기	욕조	샤워기+ 욕조	없다	계
	13(13.0)	4(4.0)	-	83(83.0)	
온 수	가능		불가능		계
	17(17.0)		83(83.0)		

4. 주거공간에 대한 고령자의 개선 요구

주요 실에서의 불편요인은 면적협소, 수납부족 등 공간적인 측면과 급수, 난방, 급탕 등 설비적인 측면, 그리고 외풍, 환기 등 환경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4.1 침실에 대한 요구

(1) 침실사용에 대한 불편요인

침실에서의 불편요인에 대해 응답자의 64.0%가 사용상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위치나 면적 등 공간적인 문제보다는 설비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냉난방부족으로 부적합한 실온에 대한 불만이 5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심한 외풍이 8.0%이며 수납공간이 부족한 경우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냉난방설비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절에 따른 의류와 침구류, 그리고 화로나 히터 등의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난방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조건과 주택의 노후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냉난방부족을 가장 불편함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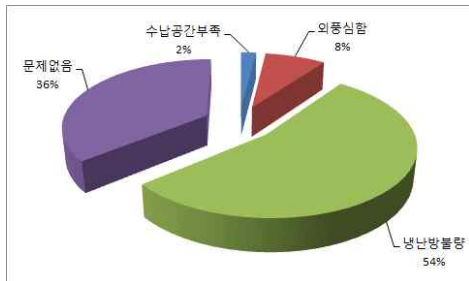


Fig. 4 Inconvenience factor of Bedroom

(2) 침실에 대한 개선요구

이러한 불편요인에도 불구하고 개선에 대한 요구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침실의 불편요인으로 표출된 54.0%에 이르는 침실내 온도의 부적합을 해결할 수 있는 냉난방 설비에 대한 요구는 각 6.0%와 20.0%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최근 하절기 최고 기온이 38°C에 이르는 실정이나 수납에 대한 요구(10.0%)보다도 냉방설비개선 요구가 낮게 나타났다. 오히려 불필요하다는 경우가 54.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농촌 주민들은 대부분 이주의 경험이 거의 없이 평생을 현재의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오랜 거주경력으로 기후조건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점이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라 하겠다.

Table. 12 Improvement factor of Bedroom

구 분	침실 개선 요구			계
	매우필요	상관없음	불필요	
냉방 설비	6(6.0)	40(40.0)	54(54.0)	100
난방 설비	20(20.0)	76(76.0)	4(4.0)	100
수납 공간	10(10.0)	84(84.0)	6(6.0)	100

그러나 손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요구도를 보면, 단순가구의 경우 난방에 대한 요구가 25.0%로 다른 침실의 개선에 대해 요구보다 2배 정도 높고, 단순가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냉방에 대한 요구가 복합가구에서는 13.6%로 냉난방에 대한 요구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가구가 복합가구에 비해 경제적인 조건과 주택의 노후정도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가구원수가 적기 때문에 더위보다는 추위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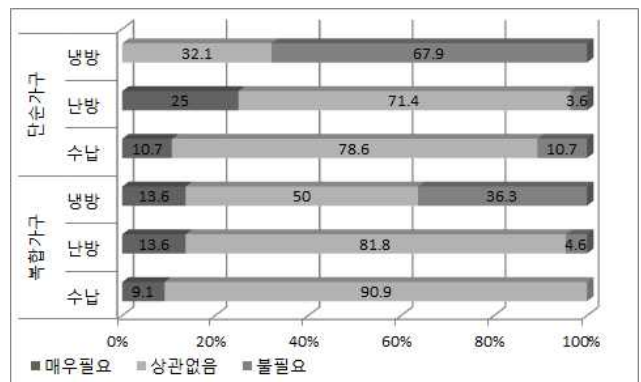


Fig. 5 Improvement factor of Bedroom by Family Style

된다. 이에 대해 해결방법으로는 선풍기와 송풍기, 화로 등 부담이 적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대부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에너지 사용이 많고 보급률이 낮은 에어컨이나 전열기에 대한 요구는 크지 않으며, 이러한 방법도 부담을 느끼는 경우는 돛자리나 온수 주머니 등 전통적이며 부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실정이다.

4.2 주방에 대한 요구

(1) 주방사용에 대한 불편요인

현대의 일반적인 주방은 거실 또는 식사실과 연결되거나 주택의 어디에서도 관찰이 가능한 개방된 구조이지만 중국의 전통적인 주방 구조와 의식은 다르다. 중국의 주방은 폐쇄형으로 보통은 현관문 바로 옆에 배치되며, 출입문은 거의 닫혀진 상태를 유지한다¹⁵⁾. 이는 중국요리가 대부분 볶음, 튀김으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 냄새와 연기가 침실이나 거실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이유로 외부인에게 자기 가정의 주방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고, 더불어 경제적인 부담까지 감수하고 개선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낮다는 의식이 일반적이다. 특히 현시성(顯示性)¹⁶⁾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지는 중국적 사고를 고려하면 주방의 개선에 대한 중국의 의식이 높을 수 없음을 예측할 수 있다.

주방 이용에 대해 조사대상의 73.0%가 특별한 불편요인이 없다는 응답을 하고 있어 침실이나 욕실, 화장실 등 다른 공간에 비해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사용이 불편하다 응답한 37명 중 급수설비에 대한 불만이 1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협소함이 7.0%, 환기불량이 4.0% 등 공간적인 불만보다는 설비에 대한 불편함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침실, 거실 등의 본채 생활공간과는 분리되어 별채에 설치되거나, 일부가 옥외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라도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의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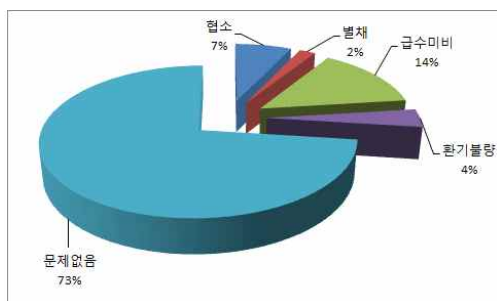


Fig. 6 Inconvenience factor of Kitchen

(2) 주방에 대한 개선요구

1) 본채내 설치

주방의 본채내 설치에 대한 소극적인 의식은 개선 요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주방의 본채내 설치여부에 대해 ‘상관없다’는 경우가 86.0%에 이르며,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6.0%로 ‘매우 필요하다’는 경우(8.0%)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합가구의 경우에는 18.2%가 본채내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요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단순가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

한 복합가구의 요구는 실제로 고령자 자신의 요구보다는 자녀세대의 요구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Table. 13 Improvement factor of Kitchen

구분	주방 개선 요구 -명(%)			계
	매우필요	상관없음	불필요	
본채내 설치	8(8.0)	86(86.0)	6(6.0)	100
바닥 개선	62(62.0)	-	-	100
급수 설비	100(100.0)	-	-	100
온수 설비	2(2.0)	60(60.0)	38(38.0)	100
환기 설비	72(72.0)	28(28.0)	-	100
전통 작업대	23(23.0)	56(56.0)	20(20.0)	100
개량 작업대	14(14.0)	78(78.0)	8(8.0)	100

2) 급수설비

모든 응답자가 개선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급수설비로 이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통계¹⁷⁾에 의하면 중국은 2억 정도의 인구가 식수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식수 불안전 문제도 아주 심각하다. 그러나 상수도의 보급율은 76%로 중국의 중동부 지역내¹⁸⁾ 80만명 정도의 농촌인구는 오염된 강이나 연못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한 급수 설비의 설치는 시급한 문제이며 식수의 안전성도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점차로 농촌까지도 상수도의 보급이 시작되었으나, 전통 주거에 생활하는 주민들에게는 혜택은 미비한 상황이다. 더우기 노인 단순가구인 경우 양호하지 않은 건강상태로 멀리 떨어져 있는 호수나 우물 등을 이용하는 전통 용수 방식에 대한 급수설비에 대한 요구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수도 공급 시스템에 대한 요구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한 방법, 즉 기존의 우물에 양수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급수설비에 대한 절대적인 요구에 비해 온수설비에 요구는 단 2%에 불과하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온수가 필요한 경우에만 물을 끓일 수 있고 온수설비로 전기, 가스 등의 사용을 낭비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3) 환기설비

환기설비에 대한 개선 요구는 72.0%로 비교적 높고, 단순가구의 53.8%, 복합가구의 95.5%가 개선의 필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가스 때문에 환풍기 등 환기설비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특히 나무의 연소시 발생하는 연기와 그을림으로 주방의 노후가 심각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실외와 다른 재래식 주방을 거실이나 침실 등 주택의 주요 실과 인접하여 배치하면서 전통 부뚜막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17) 2010년 음료수의 상관문제의 보고, 2010

18) 중국중동부 범위는 山東省, 江蘇省, 浙江省, 福建省, 安徽省, 江西省, 上海市를 포함하다.

15) 차이나 트렌드, 배영준 외, 토네이도, 2010. pp 47

16) 남에게 드러내어 보여지는 것

개량 작업대와 공존시키기 위해서는 환기 설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환풍기와 같은 환기설비의 구비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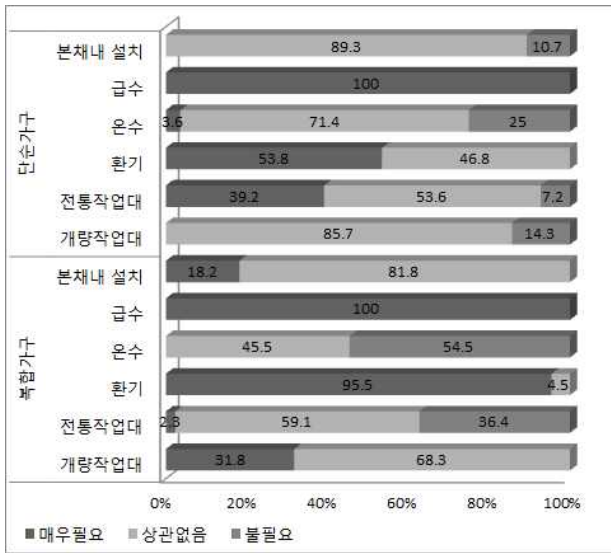


Fig. 7 Improvement factor of Kitchen by Family Style

4) 바닥 및 작업대

재래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경우, 울퉁불퉁한 흙바닥의 평탄화 요구가 6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주방 바닥을 시멘트 몰탈이나 타일 등으로 마감하거나 마루를 까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방 바닥에서 흘리는 물들을 지면에서 흡수 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욕실의 기능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욕조와 비슷한 크기의 용기에 물을 담그는 정도이기 때문에 흙바닥이 물을 처리하기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마감재 변경이 아니라 평탄하게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작업대 유형에 대한 요구는 개량 작업대(14.0%) 보다 전통적인 작업대(23.0%)가 더 높게 나타났다. 단순가구의 경우 전통 작업대에 대한 요구는 39.2%에 이르고 있으나 개량 작업대에 대해서는 요구가 없는 반면, 복합가구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개량 작업대의 요구는 31.8%이나 전통 작업대의 요구는 4.5%에 불과하다. 단순가구의 경우 노인들의 개량 작업대의 경험이 많지 않아 이에 대한 필요성이 낮고, 복합가구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인식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겠다.

4.3 욕실에 대한 요구

(1) 욕실사용에 대한 불편요인

중국에서 특히 중국의 농촌에서 목욕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위는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점차 개인위생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과정에 있다.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주방에서, 겨울철에는 공공목욕탕

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내 단독욕실에 확보된 가정에서도 겨울철에는 가족과 함께 공공목욕장의 이용을 편리하다고 생각하므로 마을 인근에 있는 공공목욕장의 활용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방에서 목욕을 하는 경우도 별도의 욕실을 보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조사하였다. 이들의 불편요인으로 설비미비(40.0%), 바닥마감재(31.0%)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래식 주방을 욕실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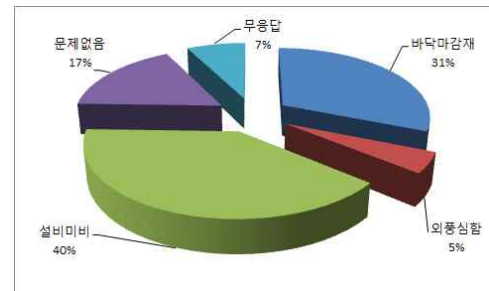


Fig. 8 Inconvenience factor of Bathroom

(2) 욕실에 대한 요구요인

응답자의 40.0%는 욕실이 매우 필요하고, 100.0%가 온수설비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난방설비의 필요성은 2.0%에 불과하다. 이는 고령자에게 온수보다는 난방이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의미이고, 하절기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인 목욕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실제로 조사 대상 중 일부 주택은 이미 욕실의 난방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목욕의 일반적인 설비인 샤워기와 욕조에 대한 요구를 보면, 샤워기의 요구가 35.0%로 욕조(20.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욕조의 요구가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농촌의 고령자에게는 오랜 기간동안 이용해 온 전통 욕조를 필요에 따라 주방에서 이용하는 방식이 익숙하고, 욕실에 정착된 욕조를 직접 사용할 기회가 없거나 적어서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일정한 대량의 용수를 필요로 하는 욕조를 굳이 정착시키는 방식이 또 다른 낭비의 의미로 여기는 전통적인 인식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Table. 14 Improvement factor of Bathroom

구분	욕실 개선 요구			-명(%)
	매우필요	상관없음	불필요	
필요성	40(40.0)	58(58.0)	2(2.0)	100
샤워기	35(34.0)	60(60.0)	6(6.0)	100
욕조	20(20.0)	60(60.0)	-	100
난방 설비	2(2.0)	72(72.0)	26(26.0)	100
온수 설비	100(100.0)	-	-	100

손자녀와 동거하는 복합가구의 경우에 별도의 욕실공간에 대한 요구가 54.5%로 노인만의 단순가구의 요구인

28.6%의 2배에 이르고 있다. 또한 샤워기와 욕조의 요구에서도 단순가구에 비해 복합가구의 요구가 크게 나타나 가구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샤워기의 경우 단순가구의 요구는 7.1%에 불과하나, 복합가구에서는 별도의 욕실공간에 대한 필요성(54.5%)보다 높은 68.2%로 나타나 손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욕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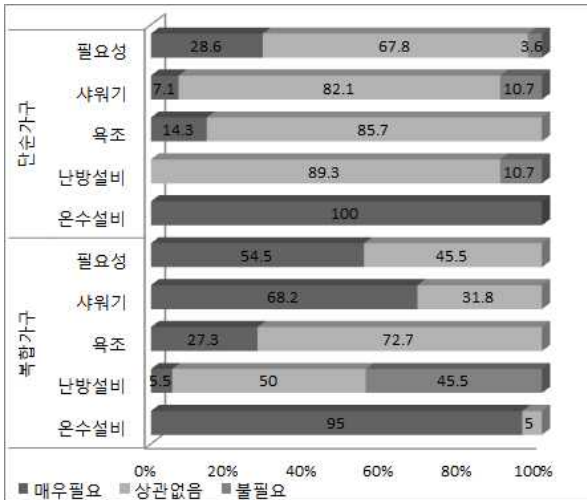


Fig. 9 Improvement factor of Bathroom by Family Style

4.4 화장실에 대한 요구

(1) 화장실사용에 대한 불편요인

화장실 사용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모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농촌주택에서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화장실이 가장 문제가 많았던 생활공간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야간과 강우시에는 실내에서 요강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불편한 요인으로는 실외에 위치하여 사용하기 불편한 경우가 34.6%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외풍이 심하다는 의견이 27.7%, 악취 발생이 5.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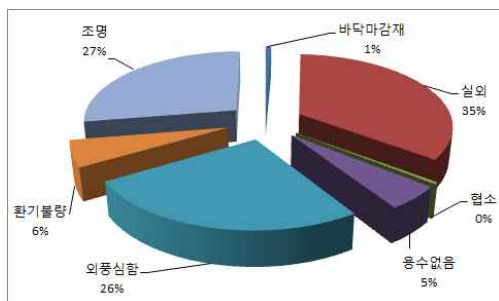


Fig. 10 Inconvenience factor of Toilet

(2) 화장실에 대한 요구요인

실내 화장실 설치에 대한 요구가 90.0%로 매우 높고 가구유형별 차이가 거의 없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변기의 개선에 대한 요구는 50.0%로 비교적 높으나 복합가구의 경우는 81.8%, 단순가구의 경우에는 25.0%로 1/4에 불과하여 가구유형에 따른 요구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실내 화장실의 경우 반수세식 변기의 사용이 미숙하여 배관이 막히거나, 설치기술 미비로 인한 누수현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어서 변기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더 크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외에 있는 기존의 재래식 화장실도 함께 이용하고 있었다.

Table. 18 Improvement factor of Toilet

구분	화장실 개선 요구 -명(%)-			
	매우필요	상관없음	불필요	계
욕내 설치	90(90.0)	6(6.0)	4(4.0)	100
변기 개량	50(50.0)	50(50.0)	-	100
난방 설비	-	50(50.0)	50(50.0)	100
환기 설비	34(34.0)	30(30.0)	36(36.0)	100

반면에 환기설비의 개선에 있어서는 두 유형별 의견이 상반된 결과를 보여, 오히려 복합가구에서는 필요성이 없으나 단순가구의 경우에는 60.7%로 변기의 개량에 대한 요구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복합가구의 주택의 개량화 정도와 관계가 있는데, 현재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정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래식 주택의 경우 실외에 설치되었지만 창문이 설치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악취로 인한 불편함이 크게 느껴지지만, 개량식 주택에서는 창문이나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체감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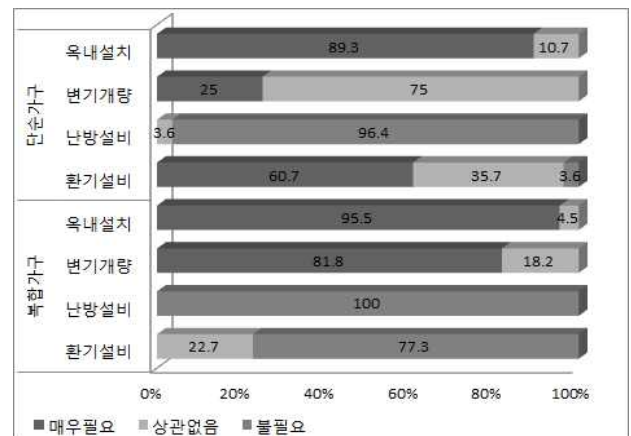


Fig. 11 Improvement factor of Toilet by Family Style

또한 단순가구의 경우 수세식 변기의 사용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것도 원인이 되기도 한다. 노인들의 경우 자신의 오랜 경험과 습관에 따라 문제의식의 경중이 결정된다는 점도 이러한 상반된 결과의 원인이라 하겠다. 유사한 원인으로 난방에 대한 요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동절기의 기온이 낮아 침실에서 난방에 대한 요구는

높으나 이용시간이 짧은 화장실까지 난방을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연중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보이기 때문에 동절기의 일시적인 난방을 위한 설비는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예측된다. 비록 전기료의 부담이 비교적 낮은 환풍기의 설치도 창문에 의한 자연환기만으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도 있다. 이처럼 욕실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부담여부도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중국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주택의 주요 실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를 비교 분석하여, 급후 중국 농촌지역의 고령자 주택 계획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100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각 가구별 이용현황과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의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고령자 가구의 평균 보유 침실수는 3.12개, 실제 사용 침실수는 2.07개로 물리적 부족으로 인한 불만은 없으나, 냉난방설비의 부재로 이에 대한 불만은 높게 나타났다. 단순가구에서는 난방에 대한 요구가, 복합가구에서는 난방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경제적인 부담과 이미 적용된 익숙함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요구는 각 6.0%, 2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주방의 경우 62.0%가 별체에 배치되어 있고 급수 및 급탕설비는 거의 없다. 주요 취사연료인 목재, 가스, 석탄의 연주 중 발생하는 연기와 가스 때문에 본체내 설치에는 부정적이나 복합가구의 경우에는 응답자인 고령자가 자녀세대의 의사를 고려하여 일부 개선요구를 보인다. 이러한 개선 요구의 근본적인 대책은 일반적인 환기설비에 의한 연기와 가스의 제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축적 개선에 앞서 취사연료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급수, 환기, 바닥 등의 개선요구가 높지만 급탕설비에 대한 필요성은 낮고, 단순가구에서는 재래식 작업대의 정비를 복합가구에서는 개량식 작업대로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화장실과 욕실의 실내 설치율은 각 18.0%, 17.0%에 불과하며 실외에 배치된 경우는 환기, 온수, 난방 등은 전무한 상황이다. 화장실과 욕실의 실내설치 대한 요구는 각 90.0%, 40.0%로 주방의 실내 설치요구보다 높으며, 온수나 난방에 대한 요구도 많으나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할 것에 대한 우려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정식 욕조, 수세식 변기 등에 대한 경험이 없는 고령자의 비율도

높고 요구도 작다. 단순가구에 비해 복합가구의 수세식 변기와 별도의 욕실공간과 샤워기와 욕조에 대한 요구 크게 나타나 가구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중국의 농촌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화장실이 가장 불편하여 개선의 필요가 높고, 다음으로는 욕실, 침실, 주방 순으로 나타났다. 각 불편요인 중에서는 주방의 급수설비와 욕실의 온수 공급에 대한 요구가 100%에 이르며, 실내 화장실 설치와 주방의 환기설비 순으로 많은 비율을 보인다.

또한 화장실과 욕실의 경우는 경제적인 부담과 경험부족이, 주방의 경우에는 연료의 교체가 선행되지 않으면 건축적인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적합한 공간의 제공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의 생활을 유도함으로써 주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는 있으나 이미 수십년의 익숙함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녀 또는 손자녀와 동거하는 고령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보다는 그들의 의사를 수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농촌지역 고령자의 인식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사회적 배려와 공감대 형성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도농간, 세대간의 상호 교류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1. 유이연 외, 중국 중동부 농촌주택의 특징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2013.2.
2. 류닝창, 농지아러 관광을 통해 본 중국의 농촌사회, 전북대학교 석논, 2012
3. 엄정명 외, 중국 리스크 평가와 한국 경제, CEO 인포메이션(790), 2011
4. OECD(2010), OECD Economic Surveys: China
5. 김정근, 늙어가는 중국: 중국의 고령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SERI 경제포커스, 2011.3
6. 2013 고령자 통계, 통계청. 2013

접수일자 : 2014. 4. 10
 심사완료일자 : 2014. 5. 20
 게재확정일자 : 2014. 5. 23